JDCS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8, No. 2, pp. 303-309, Apr. 2017

대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관한 연구 : 영유아교육 관련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모 아 라[1] · 이 소 현[2]*
[1]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2]포스코 어린이집 원장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Using Smartphones During Class : Focused on students of Child Care Departments in colleges

A-Ra Mo[1] · So-Hyun Lee[2*]
[1]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eonsung University, Anyang-si 14011, Korea
[2*]POSCO Child Care Center, Seoul 06194, Kore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육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영유아교육 관련학과 학생 10명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 원인]은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있음>,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없음>으로, [부정적인 결과]는 <집중력 저하>, <교수자와의 갈등>으로, [긍정적인 결과]는 <학습 지원>, <기억 지원>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대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ause and result of the smartphone use in the classroom, focusing on students from Child Care departments in colleges. The targets of this study were 10 college students from child care departments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ause of use] was divided into <Intended use purpose>and <Unintended use purpose>. [Negative result] has been identified by <Lack of concentration> and <Conflict with professor>. [positive result] has been identified by < Learning Support >, < Memory Support >. The study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identifying the problems of smartphone use of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and contributing to the provision of basic materials for the use of favorable purposes.

색인어 : 스마트폰 사용, 의도적인 사용 목적, 집중력, 학습 지원, 기억 지원
Key word : Smartphone use, Intended use purpose, Concentration, Learning support, Memory support

http://dx.doi.org/10.9728/dcs.2017.18.2.30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2 April 2017; **Revised** 27 April 2017
Accepted 28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So-Hyun Lee**

Tel: +82-70-8635-8820
E-mail: ababae@naver.com

Ⅰ. 서 론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6년 이동전화 가입자 6,028만 7천명 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641만8천명으로 77.0%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6.3% 증가하였다[1]. 이는 스마트폰 가입자 통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105%의 증가한 것이며, 인구 100명당 스마트폰 가입자는 90.6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스마트폰을 주로 게임이나 인터넷 이용에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게임 또한 네트워크(인터넷)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주를 이룬다.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발표한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 역시 88.3%로 전년보다 3.2%p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의 주평균 이용시간은 20대가 22.8시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활용도 관련 조사를 보면 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와 '이메일 확인 및 개인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68.1%, 66.9%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게임', '신문 잡지, 책 등의 독서용', '영화, 드라마 등 시청' 등이 높게 나타났다[2]. 흥미로운 것은 스마트폰 사용 후 감소한 활동과 증가한 활동에 모두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포함되었는데, 내용은 현실세계의 대화가 가상의 대화(SNS)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통계를 보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20대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보급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함께 있을 것인데, 한국 사회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어 왔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한 2011년에 벌써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연구(윤주영 외, 2011)를 하였는데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컴퓨터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불리던 것이 그대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3].

그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스마트폰 관련 논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기술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관점이 커다란 축을 이루고, 다른 한축은 여전히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논문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관련 최신 논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대인관계와 건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과거의 관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하지만 교수 경험을 가진 본 연구자들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금기시 되어왔던 수업 중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워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 후 대학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활용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대학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에 있어 대상자의 선택기준은 연구 주제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참여자이다[5].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영유아교육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1차 연구를 시작하였다. 1차 연구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2차 및 3차 연구 참여자는 1차 연구 참여자 중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10명을 선별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10명 중 20세~23세의 여성 8명, 20~26세의 남성 2명이었으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학생들로 선별하였다.

2-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과 포커스 그룹(focus group) 면담 방식을 병행하였다. 질문지 방식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연구에서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연구 대상자 10명을 포커스 그룹(focus group)으로 선정하여 2차, 3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방식의 면담은 보다 면밀한 내용 도출을 위해 총 2회에 나누어 이루어졌다. 미리 준비한 질문으로 시작 된 2차 연구는 그룹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보다 심층적인 내용의 도출을 위해 핵심질문을 다시 정리하여 3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2회와 3회 연구자는 동일하였으며, 한 회당 면담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총 4시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포커스 그룹 면담 시에 연구자는 미리 준비한 질문을 바탕으로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경청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차 3월 21일, 2차 4월 25일, 3차 6월 2일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자료 분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laizzi는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깊이있는 성찰을 강조하였으며, 연구자의 지각도 분석 속에 포함시켜야 하고 자료를 수집함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료분석은 1단계에서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고, 2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모았으며, 3단계에서는 모아놓은 진술들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주제 분류를 위해 재구성한 의미들을 묶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5단계에서는 유사한 주제들을 묶어 주제군을 만들었다. 5단계의 과정 동안 연구자들은 반복 읽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6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2명의 참여자에게 분석한 내용과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2-4.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Cola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따라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는 연구 참여자 2명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질적연구방법으로 다수의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고 대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수행에 적합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10명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경험을 Colaizz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192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확인되었다[5]. 이러한 의미있는 진술들은 유사한 의미로 묶어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후 주제들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3개의 주제군과 6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
Table. 1. Experience Using Smartphone during class

Components	Sub-components
Cause of use	Intended use purpose
	Unintended use purpose
Negative result	Lack of concentration
	Conflict with professor
Positive result	Learning support
	Memory support

자료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사용 원인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3-1. 사용 원인

스마트폰의 [사용 원인]에 관한 주제군은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있음>,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없음>으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1)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있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수업 중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수업 중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궁금해서요,, 교수님께 질문해도 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고 하실까봐서 그냥 검색해서 몰래 확인해 봅니다.(2016. 6. 2. 참가자 9)

> 수업하다보면 지난 번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자꾸 그 내용 이야기하시고. 그 내용 모르면 들어도 모르겠고. 그럴때는 조용히 찾아보죠. (중략) 확실히 도움이 돼죠. 옆에 안 물어봐도 되고. 교수님도 도움이 되실걸요. 물어보고 그러면 진도도 못 나가고. 아는 애들은 불만일거고.(2016. 4. 25. 참가자 6)

학생들은 수업 중 학습 지원을 위한 도구로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가 있었어요. 수업 중이었는데, 그냥 계속 핸드폰만 보게 되더라구요. 소리는 안 나도 그냥 눈이 저절로 가게 되고. (중략) 제게 상황이 안 좋아지셨다고 아빠로부터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꼭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있긴 하죠.(2016. 4. 25. 참가자 2)

> 제가 실기 수업시간에, 준비물을 깜빡 잊고 그냥 온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와 집이 멀지 않아서 부모님께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해야 해서 카톡을. 수업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시간도 얼마 없고.(2016. 6. 2. 참가자 1)

>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강의 시작 시간도 아침 9시 정각이고, 합격자 확인시간도 아침 9시 정각부터라서 너무 궁금해서... 수업 중이지만, 확인했어요. 못 참겠더라구요. (중략) 그거 참으면서 공부가 됐겠어요? 한번 보는 게 낫지.(2016. 6. 2. 참가자 6)

대학생들의 성인 학습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수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았고, 수업보다 우선 순위가 더 높았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으

로 문제 해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2)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없음

학생들은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쳐다보고 만지는 모습을 지각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 카톡 내용이나 알람이 뜨면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심심할 때 손이 자동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고 참견하게 되었어요.(2016. 4. 25. 참가자 8)

> 사실 수업 끝나고 답장을 해도 되는건데, 손에 있으니깐 새우깡 선전 있잖아요. 손이가요 손이가~ 나도 모르게 손이가~ 처럼 손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냥 하는 거에요. 그냥. 이유가 없는 게 문제죠.(2016. 4. 25. 참가자 5)

> 스마트폰은 한번 손을 대니깐, 자꾸만 손이 가고 수업에 집중이 안되고. 반복되고. 수업 시간이 얼마 남았나 다시 손이 가고. 그냥 습관처럼 아무 이유 없이 누르는거죠.(2016. 6. 2. 참가자 9)

> 스마트폰이 손에 없이 학교를 오게 되는 날은 엄청나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제가 중독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2016. 4. 25. 참가자 10)

대학생들은 수업 중 특별한 이유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중독'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있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2.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집중력 저하>, <교수자와의 갈등>으로 주제가 분류되었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집중력 저하

<집중력 저하>에서는 정보를 검색하여 습득할 때 유익한 것 같지만, 스마트폰의 추가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었고, 교수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생겼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었을 때는 수업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하나 보면, 다른 것 검색하게 되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재밌어요. 제가 히죽이죽 혼자 웃으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순간 수업시간인데 "내가 모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마저 들기도 해요.(2016. 4. 25. 참가자 5)

> 정보습득 할때는 좋은 것 같지만 수업 과정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것은. 딱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2016. 4. 25. 참가자 2)

> 스마트폰을 수업 중에 사용하면 수업이 집중력이 확실히 흐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수님께서 밑줄 치라고 하시거나 강조하시는 부분을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지나칠때가 생겨요.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2016. 6. 2. 참가자 8)

> 확실하게 수업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깐 재미가 없고, 수업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죠.(웃음) 수업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밌잖아요.(2016. 4. 25. 참가자 1)

> 집중력을 잃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수업 중간중간을 놓치게 되고 놓치면서 점점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갑니다.(2016. 6. 2. 참가자 10)

대학생들은 수업 중 학습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조차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집중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학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수자와의 갈등

<교수자와의 갈등>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을 몰래 봄으로써, 학습 태도를 중시하는 교수자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와의 갈등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 문제는 학점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몰래 볼 때가 종종 있어서 조마조마하고 걸리면 혼날 것이므로, 빨리 용건을 끝내고 스마트폰을 안보이는 곳으로(가방) 넣고 싶지만, 맘대로 안돼요.(2016. 4. 25. 참가자 5)

> 교수님께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될까봐 마음이 떨리고 눈치가 보인다. 걸릴까봐 계속 불안한 상태로 수업을 듣게 된다.(2016. 4. 25. 참가자 4)

대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수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 중 불안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험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다.

> 수업시간에 몰래몰래 스마트폰을 보다가 교수님께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제

잘못을 알지만, 저도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주의해야지 하고 수업에 들어와도 잘 안 되고.(2016. 6. 2. 참가자 2)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제 이름을 "00 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냥 단지 이름만 부르셨을 뿐인데, 왜 이리 창피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던지요...스스로 심한 죄책감에 빠져 며칠 동안 힘든 적도 있어요.(2016. 4. 25. 참가자 3)

진동으로 해놓아도 수업시간이 너무 조용하면 모두 알잖아요. 그 당황함이란 말로 못해요. 순간 얼굴도 빨개지고. 교수님은 제 이름 부르시고. 친구들은 저를 일제히 째려보고.(2016. 4. 25. 참가자 10)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실제 수업 시간 중에 지적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적은 교수자 뿐 아니라 동료들에게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수님께 지적당하고 결국 교수님께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업 중 스마트폰을 많이 본 과목은 확실히 성적이 떨어집니다. 성적이 안 좋아요. 자업자득이죠...씁쓸합니다.(2016. 6. 2. 참가자 1)

입학하고 처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바로 제 앞까지 오신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본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보만 찾다가 어느새 새로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아찔함이란,,,, 정말 땀이 줄줄.... 그 과목 성적은 좋게 나왔을 리가 없죠.(2016. 4. 25. 참가자 5)

교수님께서 반 아이들 전체에게 "폰을 넣고 집중하자" 라고 말씀하셔서 직감적으로 저인줄 알았어요. 덜 민망하긴 했는데, 속으론 아! 나는 "교수님께 찍혔구나!" 라는 생각에..... 어차피 성적이 나쁠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 이 과목은 아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2016. 6. 2. 참가자 6)

대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교수님과의 갈등 또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지적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학점으로까지 이어졌다.

3-3.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결과]에 관한 주제군에서 <학습 지원>, <기억 지원>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얻는 긍정적인 결과는 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에 활용하거나 수업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하는 것 등임을 알 수 있었다. 학습 지원과 기억 지원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신속함, 편리성, 정확함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습 지원

대학생들은 학습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었고, 실제적인 도움 또한 받고 있었다.

수업 내용 중 모르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활용한 적이 있어요.(2016. 4. 25. 참가자 6)

수업하고 관련된 최근의 이슈를 찾는 정보검색을 할 때 빨리 할 수 있으니깐 좋습니다.(2016. 4. 25. 참가자 10)

정말 몰라서 찾아봐야만 할 때가 있어요. 다 아는 거 같은 내용인데, 나만 모를 때. 이럴 때는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나만 보면 되니까 좋죠.(2016. 4. 25. 참가자 2)

수업 중에 스마트폰의 활용으로 수업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학습에 도움을 받는 경험도 나타났다.

어떤 때에는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정보를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수업 중에 합리적으로 스마트폰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 좋긴한데.(중략) 사실 그 내용만 보이질 않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보게 되고. 그러다보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보게 되기도 하죠.(2016. 6. 2. 참가자 4)

교수자 또한 스마트폰의 활용한 교수 방법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고 바람직한 활용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부정적인 기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었다.

2) 기억 지원

대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수업 내용이나 휴·보강날짜, 시험날짜, 과제발표날짜 등 중요한 수업 스케줄을 기억해야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수업 중 필기할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PPT를 바로 찍어서 저장을 하면 무척 편리하더라고요.(2016. 4. 25. 참가자 5)

글씨를 일일이 쓰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2016. 4. 25. 참가자 5)

가끔은 강의용 PPT가 너무 빨리 넘어가는 PPT or 교재에 없는 내용의 PPT가 있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도 해요.(2016. 6. 2. 참가자 4)

사진 찍어서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그때 상황도 기억이 나고 편리해요. (중략) 저는 잠 안 올 때 찍어놓은 사진 보거든요.(2016. 4. 25. 참가자 5)

수업내용의 경우, 수업 중 필기양이 너무 많거나, PPT 내용을 기억할 수 없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은 후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수업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 수업 관련 캘린더에 보강날짜나 시험날짜를 저장할 때 정말 좋아요.(2016. 4. 25. 참가자 6)
>
> 교수님 이메일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할 때와 과제 내용을 메모할 때 좋아요.(2016. 6. 2. 참가자 1)
>
> 휴강 · 보강날짜, 과제발표 날짜를 체크해 두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입력도 하고 알람도 맞춰놓고 그러죠. 자꾸 잊어버리니깐.(2016. 6. 2. 참가자 4)

과거와는 달리 수첩, 달력 등을 휴대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해서 조사하여,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사용 원인,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사용 원인의 하위 주제는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와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없는 경우로 분류되었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집중력 저하와 교수자와의 갈등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긍정적인 결과의 주제는 학습 지원과 기억 지원으로 나타나, 총 3개의 주제군은 6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용 원인]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있음>, <의도적인 사용 목적이 없음>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 목적 유무에 따라서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났는데, 사용 목적이 분명한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에게서도 중독성향이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중독성향에 대해서는 고기숙 외의 연구에서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을 과다사용 및 통제력 상실로 본 것과 유사하다[6].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관하도록 할 경우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몰래 사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학급 수업분위기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규정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게 될 경우 수업 분위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7]. 또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또는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변회숙 외의 연구와도 본 논문의 결과와 같은 의견으로 분석되었다[8].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주제군은 <집중력 저하>, <교수자와의 갈등>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주의가 산만해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이나 업무 중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특히 수업 중 학습자가 정보 검색 필기 등 학습 보조 수단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수업 분위기 및 학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수자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정규원 외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같은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9].

[긍정적인 결과]에 관한 주제군은 <학습 지원>, <기억 지원>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습 자료 검색, 수업 내용 메모, 수업 일정 관리 등을 통해서 신속함, 편리성, 정확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시험기간에 스마트폰 이용률이 네이버 검색 혹은 사진 찾기 등의 검색으로 인해 오히려 높았고 학습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0]. 따라서 수업 중 스마트폰 활용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게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더 많은 대상의 연구와 함께 양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이 주를 이룬 만큼 수업 중에 스마트폰의 사용을 지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을 수업 중 사용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에 스마트폰 또한 하나의 교육매체로써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

[2] The editorial staff of Embrain Trend Monitor "Investigation on smartphone utilization," Embrain Trend Monitor, Vol. 2012, No.7, pp.238-258, 2012.

[3] J. Y. Yun, J. S. Moon, M. J. Kim, Y. J. Kim, H. N. Kim, B. L. Huh, J. E. Kim, S. L. Jeoung, J. E. Jeong, H. J. Jeoung, E. H. Lee, J. H. Choi, S. Y. Hong, J. Y. Bae, H. J. Park, H. J. Hong, "Smart Phone Addiction and Health problem in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 3, No. 2, pp.92-104. 2011.

[4] I. K. Kim, S. U. Park, H. M.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637-648, 2017.

[5] R, F, Cola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6] K. S. Ko, M. J. Lee, Y. E. Kim, “A Research on Addictive Use of Smartphone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3 No.4 pp. 501-516, Dec. 2012.

[7] K. J. Han, "The case study of Smartphone control Pprogram in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Vol.52, No.1, pp.273-290, 2015.

[8] H. S. Byun, S. Y. Kweon,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neliness on School Life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Vol.23, No.4, pp.303-317, 2014.

[9] G. W. Jung, I. Y. Kim, H. Y. Jung, U. C. Lee, "Understanding Smartphone Usage during the University Class And Exploring Design Factors of Intervention System to Promote Concentration in Class," PROCEEDINGS OF HCI KOREA , Vol.2017, No.2, pp.988-991. 2017.

[10] J. Y. Chung, M. J. Kim, “ Producing of Application Usage Recording Program and Analyzing Smartphone Application Usage of High School Student with the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7, No.5, pp. 417-423, Oct. 2016.

모아라(A-Ra Mo)

2006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문학석사)
2014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2009년～2015년: 서울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2016년～현 재: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교육기관 중간관리자교육(Middle manager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교사교육(Teacher Education),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등

이소현(So-Hyun Lee)

1999년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사)
2014년 : 공주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육학석사)
2017년 :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육학박사)

2015년～현 재: 포스코(직장) 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저작권 교육(Copyright Education), 유아 놀이(Child Play), 교사 교육(Teacher Education) 등